



1964년 5월 17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노주일 예배를 드렸다. 청년회에서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사진은 1970년대 7월경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는 언제 어디서나 통기타만 있으면 다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많은 '교회 오빠'들은 모두 기타를 배우곤 했다. 앞줄 좌 2번째 최찬목사님(최영장로님 동생)은 기타연주의 달인이었다. 뒷줄 최문상목사님(안산성결교회)은 무슨 자신감으로 상의탈의하셨는지 묻고 싶다.



1973년 7월 자월도에서 청년회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짝꿍은 남자청년들은 여자청년들을 들어서 물에 빠뜨리는 재미로 수련회 참가하 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는 앞줄 이애희 권사님에게 들어보자.





1977년 11월 19일에 청년부 필로스 1000명 기도회를 가졌다. 여러 모임 중 필로스(지금의 셀모임)에서 1000명을 작정하고 기도한 믿음이 대단하다. 뒷줄에 황우여(전 교육부장관, 전 국회의원) 청년의 모습도 보인다.



1983년 3월 1일 강촌으로 청년부 야유회 행사가 있었다. 그 당시 3월 1일은 대한민국 전 교회가 야유회나 등산대회를 하는 날이어서, 경춘선 완행기차는 항상 북적였다. 그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길에서 소중한 사진 한 장을 남겼다.



1985년 1월에 대학부 동계수련회를 가졌다. 보통 기도원이나 대성리 샐터의 조용한 민박집을 섭외하여 뜨거운 예배, 찬양, 기도와 성경공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밤새워 이야기 꽃을 피우는 낭만적인 시간이었다.





주일학교 교사는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 항상 시끌벅적하고 열기가 가득했다. 열심으로 봉사하며,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오가기도 했다. 이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송현교회를 지탱했다.



기드온 300청년회는 매년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문학의 밤 행사를 하였다. 시와 수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연극이었다. 의상을 보니 앞 줄 김근호집사님이 로마병정인 듯하다.



제4회 송현가족경창대회가 1987년 10월 4일에 개최되었다. 초창기에 기드온300 청년회가 주관하여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어지는 의미있는 전교인 찬양제이다. 코로나 끝나고 이 대회가 다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1984년 부터 세미나, 방송제, 홈커밍데이형식으로 이어온 대학부 축제이다. 세미나에서 신학적인 주제 발표를, 방송제에서 시사 감성을, 홈커밍데이에서는 유쾌한 즐거움을 통해 매년 성장해 나갔다.



1990년 4월 5일 식목일은 그 당시 공휴일이라서 야외행사하기 좋은 날이었다. 마니산으로 등산대회를 가서 점심식사 후 찍은 사진에서 청년들의 열정과 풋풋함이 느껴진다. 맨 앞줄 하미숙권사님이 가장 함박웃음인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매년 동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란다. 2009년 수련회도 한용회 목사님과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하였다. 청년들의 얼굴 표정이 겨울 추위도 이겨내는 행복한 모습이다.





청년 '갈렙'의 선배들  
인 모임 '청년 여호수아'가 연말에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보며, 예  
배와 찬양 이 외에도  
신앙적 나눔 이야기,  
게임, 식사로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10년  
전 사진인데도 지금과  
다르지 않은 젊음이  
느껴진다.



2016년 7월 16일 청  
년부에서 특별한 야유  
회를 가졌다. 담당 장  
로님과 부장님, 그리  
고 청년임원들을 중심  
으로 문학경기장에서  
프로야구 올스타전 경  
기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산과  
들로 가는 야유회나  
단합대회가 이제는 젊  
은이들을 통해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재미  
있다.



본격적인 8월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비전센  
터 옥상에서 2차에 걸  
쳐서 캠핑데이를 진행  
하였다. 텐트와 바베  
큐, 미니카페, 야외영  
화관이 설치되었고,  
토크쇼, 레크레이션  
등 색다른 경험을 나  
누었다.





2019년 7월 27일~8월 3일까지 그밖 청년부에서 태국 아웃리치를 가졌다. 예배사역, 교육사역, 문화공연사역, 공동체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태국 라후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한다.



2019년 청년부 태국 아웃리치에서 라후족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 이곳 아이들은 어디가나 순박하고 정이 많다.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무척 어려웠다는 청년들이 많았다.